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총체적 부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TCT)이 핵심사업 분야에서 크고 작은 부실을 드러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총체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사후약방문식 뺄춤처방에 나섰다.

5일 광주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하 나이파)은 지난 6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상대로 긴급 현장 점검을 벌여 운영 부실에 따른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점검 대상은 ▲지역SW 기업성장 지원 ▲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역SW 품질역량 강화 ▲지역SW 융합클러스터 등 크게 4가지로 점검 결과 "사업 추진 진척도 인력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업 추진 의지가 의심될 정도로 총체적 부실"이라는 사실상 낙제 판정을 받았다.

기업성장지원 사업의 경우 수익원의 예산이 연초에 교부됐음에도 사업별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상반기 예산 지출액이 0%, 즉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이파와 협약 당시 5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증도에 승인도 통보도 없이 총괄책임자를 비롯 4명이 변동됐고 일부는 내부 문서상 영종한 곳으로 발령나 있는 등 인력운용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 신규 고용은 10명을 목표로 잡았으나 상반기 실적은 둘 다 제로에 가깝다. 마케팅, 네트워크 분야 실적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품질역량강화사업도 퇴사 인력에 대한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전담인력도 배치되지 않은가 하면 관리자의 업무 인수인계도 미흡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고, 일부 인력은 신규 발령 후 병가 전까지 석 달간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집행률도 10%대로, 인건비와 국내 출장 등을 제외한 사업 관련 지출은 0원에 가까웠다. 역량센터 이전계획은 보류 상태에 놓였고, 상반기 동안 테스트도구 활용 문의조차 전무했으며 품질전문 인력이 없어 기업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회 활동, 컨설팅 지원 인종 연계 지원, 세미나도 전무했다. "상반기 동안 사업 추진이 전혀 되지 않았고 현 상태가 1-2개월 더 유지된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한부 판정까지 나왔다.

수 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융합클러스터 분야도 부실 투성이다.

## 정부 산하기관 점검 결과 "사업추진 의지 의심"

### 지역SW 예산 집행·진척도·인력 관리 낙제점

### 진흥원 "전산오류 탓...정규직 긴급 수혈" 해명

올해 협약 당시 사업참여 인력 6명 중 5명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추진팀에서 제외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진단됐다. 5년짜리 사업(3+2년)임에도 계약직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고용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과도한 사업비 잔액도 증대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집행률만 놓고 보면 창업기업지원 5%, 인력양성

25%, 네트워크 30%로 자칫 연말에 낭비성 예산 집행이나 보여주기가 행사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비 매칭사업비가 매년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역 ICT·컨텐츠산업의 지렛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 부실은 1차적으로 지난 연말 20여 명의 직원들을 상당수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무더기 구조조정

한 데 따른 후유증과 조직의 인력 운영시스템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진흥원 인력의 평가다.

특히 한 달에 두 세번 꼴로 이뤄지는 잦은 인사와 이로 인한 여수선한 조직 분위기, 고용 불안감 등이 빚어낸 예견된 부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인력 문제가 가장 커, 우선 10명의 정규직 10를 확보해 현재 모집중이고, 사업진척률은 전산시스템 오류로 빚어진 일"이라며 "8월 이후 나이파의 추가 점검 결과 관련 사업들이 뒤늦게나마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가을벌에 고추마리기가 맑고 쾌청한 초가를 날싸를 보이고 있는 5일 오후 경남 하동군 노량마을에서 농민들이 분주하게 고추를 손질하고 있다.

## 광주 남구, 청사내 상가 임대 부진 놓고 캠코와 책임 공방

상가형 건물에 입주한 광주 남구가 부진한 임대사업을 놓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 남구는 5일 상가형 공공건물 사업비를 투자한 캠코가 투자비 환수를 주장하고 있어 청사위탁개발 전방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는 청사개발 비용을 임대사업 수익으로 회수하지 못하는데 따른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사는 백운광장에 위치한 옛 백화점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어져 지난 2013년 4월 개청했다.

지하와 1~4층까지는 상가가 입주하고 남구는 5층부터 9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남구는 건물 구입비용 105억원을 투입했으며 300여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2년동안 임대사업 수익으로 투자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캠코가 투자했다.

이후 청사에는 아웃렛과 가구백화점, 카페, 병원 등이 입주했다.

하지만 접근성 등의 이유로 상가를 찾는 발걸음은 없었고 입주해 있던 업체들은 철수해 현재 상가 공실률은 70%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캠코는 지난 6월 남

구에 투자 손실 예상액 282억원에 대한 반환검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 관계자는 "당시 계약 조건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청사 임대사업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은 캠코에 있는 것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먼저이다"며 "법적인 소송을 벌이기 전에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무안공항 1시간40분 정전...승객 불편

무안국제공항 청사에 발생한 정전으로 국제선 항공기 탑승·입국 수속이 지연, 승객 260명이 불편을 겪었다.

5일 무안국제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무안공항 청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가 오전 11시50분께 재개됐다.

정전으로 탑승 수속과 출입국 절차, 청사 냉난방에 차질이 빚어졌다.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에서 출발해 오전 11시2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한 중국동방항공 MU5057편 승객 120명이 40분 가량 늦게 입국 절차를 밟았다.

무안공항에서 오후 12시10분께 출발할 예정이었던 동방항공 MU5058편 승객 140명은 오후 1시15분께 푸둥공항으로 향했다.

공항공사는 전류량 측정 부품인 변류기(CT)가 훼손돼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기안전공사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안공항 관계자는 "고압선과 연결된 변류기가 소실되면서 전력 공급이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하이를 오가는 동방항공 2편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국제선 항공기 5대 운항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 불편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무안=이기성 기자

## 야산에 도박판 벌인 조폭 일당 검거

대낮에 인적이 드문 야산에 전막을 치고 수백여원대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김모(44)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조직의 조직폭력배 김모(51)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모(57·여)씨 등 16명은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9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안성·평택, 세종, 충남 당진 충북 음성 등 전국을 돌며 야산에 전막을 치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도박판들을 모아 이른바 '도리지고쟁'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였다. 회당 판돈은 4억원에 달했으며, 모두 240여원이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밤을 보거나 도주로를 쉽게 찾기 위해 낮 시간대에 도박장을 개설했다.

이르면 오전 6시부터 도박판을 벌이기도 했으며, 뒤를 밝히지 않기 위해 하루 평균 4시간 정도만 운영하고 정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뇌물 혐의' 경찰 조사받던 공기업 직원 숨져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공기업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40분께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A(42)씨가 화성시 동탄신도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적은 5층 분량의 글이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됐다.

A씨는 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달 28일과 3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31일 반성문과 진술서를 등기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 출소 1주일만에 보복 폭력 50대 '쇠고랑'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주일 만에 보복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추위폭력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주일 만에 보복 폭력을 행사한 A(58)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에 흥해읍 B(60)씨 집을 찾아가 "너 때문에 욕심이났다"며 보복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오후 6시에 포항 북구 흥해읍 B(63)씨 집을 숨에 취한 채 찾아가 말다툼 끝에 흥기로 B씨의 B씨 손자(16)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농에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